



보도 일시	2026. 4. 8.(수) 12:00 <4. 9.(목) 조간>	배포일	2026. 4. 7.(화)
담당 부서	시장조사국 전자상거래팀	담당자	이도경 팀 장(043-880-5711) 김진이 대 리(043-880-5715)

## [거래 실태조사 결과]

## 가전 구독 시, 총 구독 비용·판매가격 등 중요정보 충분치 않아

최근 정수기, 비데 등 소형 가전뿐만 아니라 대형 가전까지 구독(렌탈)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관련 불만 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개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가나다 순)

### □ 계약 관련 불만 많고, 대형 가전 구독(렌탈) 피해 증가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 ('22년) 636건 → ('23년) 643건 → ('24년) 886건 → ('25년 6월) 459건

피해 품목은 전통적인 렌탈 품목인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대형 가전\* 구독(렌탈) 관련 피해도 2022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에서 단일 수거가 가능한 제품 14종 기준

\*\* ('22년) 16건 → ('23년) 19건 → ('24년) 39건 → ('25년 6월) 20건

피해 유형은 과도한 중도 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가장 많았고,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AS' 관련이 34.6%(908건)로 뒤를 이었다.

## □ 구독(렌탈) 계약에 필요한 총 비용과 판매가격 정보제공 미흡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렌탈)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렌탈) 품목에 대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개 사업자(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 단,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는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 품목의 ‘총 구독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를 개선하겠다고 회신함.

대형 가전 구독(렌탈) 경험이 있는 소비자(50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계약 시 ‘총 비용(4.27점)’과 ‘소비자판매가격(4.16점)’ 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의 충분한 정보제공이 필요했다.

<가전 구독(렌탈) ‘총 비용’ 표시 사례>

총 비용 표시 사례(A사 세탁기)	총 비용 미표시 사례(B사 세탁기)
<p>상품 수 1개</p> <p><b>총 구독금액 4,767,840 원</b></p> <p>매월 사용 예정 멤버십 포인트 0 P</p> <p>선 납부 결제 금액 0 원</p> <p>월 납부 예상금액 <b>66,220 원</b></p> <p>※ 첫 달과 마지막 달의 납부 금액은 사용하신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청구됩니다.</p>	<p>청약 정보</p> <p>월 93,400원 (1년차 월 요금 기준)</p> <p>이용요금 계산 신청 건수 1건 이용 요금 월 93,400원</p> <p>최종 이용 요금 월 93,400원</p> <p>본인 신용 인종이 불가능할 경우, 결제/청약 신청이 취소됩니다. 청약 완료 후 고객님의 휴대폰 번호로 청약 완료 문자가 발송되며, 계약 완료 후 계약서는 마이페이지 계약관리에서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신청 고객 동의 *</p> <p>청약하기</p>

## □ 위약금 규정 사업자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157명)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 부품 미보유 등 수리(A/S) 불가 시 조치 미흡해

A/S 조치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삼성전자는 모든 수리(A/S)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했으나, 그 외 3개 사업자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계약이 대부분인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는 제조사의 사업 중단, 부품 단종 등으로 수리(A/S)가 어려워질 경우 소비자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소비자원 개선 권고에 대해 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기존 조항 보완 및 관련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회신함.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사업자에게는 ▲ 온라인 홈페이지 내 모든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제공할 것, ▲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4개 사업자 모두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가전·정수기 사업자정례협의체를 통해 조사대상 외 사업자까지 총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표시 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 계약체결 전 총 구독(렌탈) 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 가전 구독 서비스도 렌탈 서비스처럼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하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 붙임 1.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실태조사' 개요

2.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3. 소비자 주의사항
4. 주요 소비자피해 사례
5. 관련 법률 및 기준



소비생활 중 불만·피해가 발생했거나 궁금한 점이 있을 때,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발신자 부담)에 상담 신청하세요.



## 1 조사 목적

- ☐ 최근 렌탈 서비스가 소형 가전에서 대형 가전으로 확대되며 ‘가전 구독 서비스’가 등장했으나, 실상은 기존 렌탈 방식과 큰 차이가 없음
-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정보제공 실태 점검 및 약관 분석을 통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

## 2 조사 대상

- ☐ 공식 직영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 4개사\*의 상품 판매 페이지 81개

\*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가나다 순)

## 3 조사 내용 및 방법

### < 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내용	조사 방법
• 최근 3년 6개월간('22.~'25.6.)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분석	사례조사
•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운영실태 조사 - 거래조건(총 비용, 소비자판매가) 정보제공 실태 -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이용약관	실태조사
•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계약 경험, 정보제공 현황, 피해 경험 등 소비자 인식조사 * 2021년 이후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 대상	설문조사

## 4 조사 기간

- ☐ 2025. 10. ~ 2025. 12. (약 3개월)

## 1 소비자피해 사례 분석 결과

- (접수 건수) 최근 3년 6개월간(’22년~’25년 6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연도별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6월)	합계
				2024년(~6월)		
건수 (증감률)	636 (-)	643 (1.1)	886 (37.8)	437 (-)	459 (5.0)	2,624 (-)

- (피해 품목) 전통적인 가전 렌탈 품목인 ‘정수기’가 58.2%(1,528건)로 가장 많았고, ‘음식물처리기’ 15.4%(405건), ‘안마의자’ 6.5%(170건) 순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고가인 대형 가전으로 렌탈 품목군이 확대된 2022년부터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 또한 증가하는 추세임.

### <연도별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6월)	합계
				2024년(~6월)		
건수 (증감률)	16 (-)	19 (18.8)	39 (105.3)	14 (-)	20 (42.9)	94 (-)

- (피해 유형) 계약 관련 불만이 55.1%(1,446건)로 절반 이상이였으며, ‘품질·AS’ 관련 34.6%(908건), 채권추심 등 ‘부당행위’ 6.1%(161건) 순임.
- 계약 관련 불만 1,446건 중 ‘계약해지·위약금’이 65.7%(950건)였고 ‘계약불이행’이 28.8%(416건)를 차지함.
- ‘계약해지·위약금’은 계약해지 요청 후 처리를 지연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위약금 외 추가 비용 청구 등의 사례가 나타남.
  - ‘계약불이행’은 관리 점검 미이행, 중요 계약 내용 미고지 등의 경우였음.
- ‘품질·AS’ 관련 피해는 제품 또는 AS 서비스 품질 미흡,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 등으로 인한 수리 불가 사례가 대표적임.

## 2 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 **조사대상:** 공식 직영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한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운영 사업자 4개사\*

\* 삼성전자(주), LG전자(주), 코웨이(주), 쿠쿠홈시스(주) (가나다 순)

■ **조사 품목 :**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운영 품목 총 14개\*

구분	품목
삼성전자(주)	(총 10개)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전자레인지, 에어컨, 세탁기, 건조기, 의류관리기(에어드레서), TV, 이동형 TV(무빙스타일)
LG전자(주)	(총 14개)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광파오븐, 제습기, 에어컨, 세탁기, 워시타워, 워시콤보, 건조기, 의류관리기(스타일러), 신발관리기(스타일러 슈케어), TV, 이동형 TV(스탠바이미)
코웨이(주)	(총 2개) 제습기, 의류관리기(의류청정기)
쿠쿠홈시스 주식회사	(총 1개) 식기세척기

\* 폐가전 방문수거 배출예약시스템의 단일 수거 가능 품목 중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단서조항 품목(정수기, 공기청정기, 안마의자) 제외

■ **조사 범위 :** 품목별 판매량 상위 제품 중심으로 상품 판매 페이지·결제 화면 총 81개 분석 (사업자별 조사 품목 수 X 품목별 판매량 상위 3개 상품)

### 가. 거래조건 정보제공 실태

□ (가격 정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가격 등 거래조건을 확인 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렌탈서비스 업종은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함.

-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는 모든 품목의 상품 판매 또는 결제 페이지에 총 비용을 표시하고 있으나, 1개 사업자(LG전자)는 총 14개 품목 중 57.1%(8개\*)의 ‘총 비용’을 표시하지 않았음.

\* LG전자의 ‘총 비용’ 미표시 품목(8개):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에어컨, 세탁기, 워시타워, 건조기, 의류관리기(스타일러)

-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는 모든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판매가격을 표시했으나, 1개 사업자(LG전자)는 일부 품목의 표시가 미흡했음.

#### <사업자별 총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 제공 현황>

구분	총 비용	소비자판매가격
삼성전자(주)	○	○
LG전자(주)*	X	X
코웨이(주)	○	○
쿠쿠홈시스(주)	○	○

\* LG전자는 일부 품목(제습기, TV 등)에 한해서만 총 비용 및 소비자판매가격을 배너 등으로 표시

## 나. 가전 구독(렌탈) 이용약관 조사

- ☐ (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이며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함.
  - 조사대상 4개 사업자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달리 운영하고 있었으며, 삼성전자·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쿠쿠홈시스는 렌탈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함.
- ☐ (수리 불가 시 조치방안) 조사대상 4개 사업자 중 3개(LG전자·코웨이·쿠쿠홈시스)는 구독(렌탈) 계약 중 단종 상품의 부품 보유기간이 초과할 경우 A/S가 불가하거나 관련 내용이 없음.
  - 삼성전자는 모든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약관에 명시하였으나, 그 외 3개 사업자는 계약기간이 남아있어도 법적 부품 보유기간 경과 시 대체 조치 및 보상기준을 제시하지 않음.

## 3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 가.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계약 경험

- ☐ (계약 품목) 구독(렌탈) 서비스 이용 경험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관리기’ 28.2%(141명), ‘건조기’ 22.8%(114명), ‘냉장고’ 22.0%(110명) 순이며, 다양한 품목을 구독(렌탈)하고 있음을 확인함. (복수응답)
- ☐ (계약 이유) 가전을 구매하지 않고 구독(렌탈)한 이유는 ‘계약기간 중 발생하는 A/S 비용 및 절차 관리 편리’ 43.8%(219명), ‘초기 구매 비용(목돈) 지출 부담’ 41.4%(207명) 순이었음. (복수응답)

### 나. 정보제공 현황 및 인식

- ☐ (정보 중요도) 대형 가전 구독(렌탈)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월 비용’과 ‘총 비용’(4.27점)이며, ‘소비자판매가격’(4.16점) 또한 중요한 정보로 인식됨. (5점 만점)

## 다.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피해 경험

- ☐ (피해 경험)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62.6%(313명)이며, 피해 해결에 대한 만족도는 3.48점으로 높지 않은 수준임.
- ‘원치 않는 부가서비스 자동 가입 및 권유’ 33.5%(105명), ‘제품·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미흡’ 26.5%(83명), ‘계약 관련 정보제공 미흡’ 23.6%(74명) 등 계약 당시 경험한 피해가 많았음.
  - 계약 이행 중 경험한 피해로는 A/S 처리 지연, 부품 단종 등으로 인한 수리불가 등 ‘A/S 관련 불만’이 21.1%(66명)이었음.
  - 계약해지 시점에서의 피해는 중도해지 거부, 복잡한 해지 절차 등 ‘계약해지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가 25.9%(81명)로 가장 많았음.

###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유형(복수응답, N=313)\*>

(단위: 명, %)

피해 발생 시점	구분	응답자 수	비율
계약 당시	원하지 않는 부가서비스 자동 가입 및 권유	105	33.5
	제품·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미흡	83	26.5
	계약 관련 정보제공 미흡(환불기준, 위약금 등)	74	23.6
계약 이행	A/S 불만	66	21.1
	품질 불량	49	15.7
계약해지	계약해지 어려움	81	25.9
	과도한 위약금 청구	69	22.0

\*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이용 중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313명 대상 질문

## 라.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소비자 인식

- ☐ (위약금 인식) 응답자의 31.4%(157명)는 본인이 체결한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시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함.
- ☐ (총 비용) 응답자의 67.2%(336명)는 사업자가 ‘월 요금’만 강조하고 ‘총 비용’을 명확히 비교해주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로 인식함.



**계약 체결 전**

- **총 구독(렌탈) 비용, 소비자판매가격 등 중요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 소유권 이전시까지 계약상 지불해야 하는 구독(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 모든 비용의 합계와 소비자판매가격을 확인한다.
  - 합리적인 선택을 위해 총 구독(렌탈)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직접 비교하여 구매와 구독(렌탈) 중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한다.
- **가전 구독 서비스 또한 렌탈 서비스처럼 중도해지 위약금이 발생함을 확인한다.**
  - 가전 구독 서비스는 OTT 서비스 등과 달리 렌탈 계약에 가까우므로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함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한다.
  - 고가의 대형 가전을 대상으로 하는 가전 구독(렌탈) 계약은 일시불 구매 대비 총 구독(렌탈) 비용 및 중도해지 위약금이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 **제휴카드 발급 시 필요 여부를 판단 후 결정한다.**
  - 제휴카드 발급 시 월 이용료를 절감할 수 있으나, 실적 유지 등 부가적인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필요 여부를 판단 후 결정한다.

**계약 체결 후**

- **소비자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 소비자피해 및 분쟁 발생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계약사항이 기재된 계약서 또는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 약정한 내용 등이 기재돼 있는 자료를 받아 보관한다.
  - 매달 월 이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이므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월 이용료의 변동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한다.
- **해지 시 사업자에게 신속·정확하게 의사를 전달한다.**
  - 계약 해지 시 다툼이 없도록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둔다.

※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www.ccn.go.kr](http://www.ccn.go.kr))’를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례1] 계약 형태 오인으로 인한 계약해지 요구**

A씨는 2025. 3. 15. 사업자와 냉장고 구독 계약을 체결함. 계약 당시 '구독' 용어를 할부 구입으로 인지했으나, 이후 렌탈이라는 것을 인지함. 이에 노령 소비자로 '가전 구독'이라는 생소한 서비스를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했고 서명도 직접 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를 요구함.

**[사례2] 제품 실사용 기간에 비해 과다한 위약금 청구**

B씨는 2025. 2. 12. 사업자와 TV 구독 계약(계약기간 72개월)을 체결함. 2025. 2. 21. 사업자에게 구독 계약 철회를 요구하였고, 사업자는 TV 사용 기간이 10일이 되어 위약금 약 500,000원과 회수철거비가 발생한다고 안내함.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의 위약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위약금 조정을 요구함.

**[사례3] 사업자의 중요 계약 내용 미고지**

C씨는 2024. 1. 사업자의 세탁기 계약 당시 현금가 및 할부가를 문의했으나 구독 계약 후 제휴카드 발급 시 할인 혜택 등의 설명만 함. 계약서 서명만 하도록 하여 정확한 계약조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으며, 3일 뒤 6년 약정 구독 계약임을 인지함. 이에 소비자는 중요한 계약 관련 내용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사례4] 사업 운영 중단과 부품 단종으로 제품 수리 불가**

D씨는 2021. 8. 사업자의 건조기 렌탈 계약을 체결함. 2025. 3.부터 작동에 문제가 생겨 A/S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중단해 부품이 단종되어 수리 불가하다며 위약금 없는 해지를 하겠다고 함. 이에 소비자는 2025. 8.에 렌탈 약정이 완료되어 소비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몇 개월을 남겨두고 수거만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사례5] 표시·광고와 다른 실제 청구 요금**

E씨는 2025. 5.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정수기 구독 계약(월 14,450원)을 체결함. 2025. 6. 청구 금액이 홈페이지 표시와 달라 확인하니 월 28,900원이라고 답변받음. 이에 소비자는 사업자가 2년 차부터 상승하는 요금을 숨겨서 표시했으므로 계약 해지를 요구함.

## 붙임 5 관련 법률 및 기준

###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거래조건 정보제공)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의 가격 등의 정보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해야 함(제13조 제2항).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불리한 조항)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며,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제6조).

### 3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 (표시대상 중요정보) 렌탈서비스 업종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은 소유권 이전 조건, 상품의 고장 시 소비자 책임범위, 중도해약시 환불기준, 소유권 이전시까지의 모든 비용의 합계, 소비자판매가격임.
  - 단, 모든 비용의 합계와 소비자판매가격은 정수기, 비데, 연수기, 공기청정기, 음식물처리기, 안마의자, 침대(매트리스 포함)에 한함.

### 4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장기 물품대여서비스업」

- (위약금)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는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의무사용기간 잔여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

\* 잔여월임대료 = {월임대료 X (의무사용일수 - 실제사용일수) ÷ 30}

- (면제 금액 반환) 장기유지조건으로 가입 시 제공받은 면제(할인) 금액이 있을 경우, 소비자는 잔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을 사업자에게 반환함.